



## 전통 자수공예의 진수

송현경씨 '대한민국 대한명인전' 참가

광주에서 활동하는 자수공예가 송현경씨가 8월1~20일까지 일산 킨텍스 홀에서 열리는 '2006 대한민국 대한명인전'에 참가한다.

전시, 시연, 체험, 공연, 나눔 등의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명인전에 송씨는 전통자수 작품을 출품한다.

이에 앞서 송씨는 최근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제9회 전국관광 기념품 공모전에서 창작자아이디어분야 금상을 수상했다.

민예품, 공예품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전에서 송씨는 전통적인 문양과 소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한 야외용 다구합세트(사진)를 출품,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전통복식을 연구한 송씨는 러시아 문화부 초청으로 '러시아 한인 이주 140년 한국의상전', 2005년 전통공예 명품전, 아시아 조형학회 회원전 등에 참가했으며 현재 (사)한국 무형문화재 보존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정기자 ks@kwangju.co.kr

## 광주에서 '꿈꾸는 문화세상'

전남일보 김만선기자 '함께 꿈꾸는...' 내

현장을 발로 뚫 문화부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지역 예술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책으로 엮었다.

'함께 꿈꾸는 문화세상'(한림 펴냄)은 전남일보 김만선 기자가 지난해 26차례에 걸쳐 시리트로 지면에 소개된 기사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사진은 김기중 기자가 찍었다.

책은 7개의 주제로 나뉘어, 윤애근·한희원·강숙자·손광은 씨 등 화가·가수·미술평론가 등 예술 각 분야 전문가 58명이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꿈꾸는 문화세상' 이야기를 쓰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예술의 마을 명지원

## 광주 인근 가 볼만한 문화카페

# 그윽한 차향 예술 향 모금

음악과 미술이 있는곳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요즘 카페는 차만 마시는 공간이 아니다. 작은 전시회와 음악회가 열리는 등 문화공간으로 변신을 시도 중이다. 광주와 인근 지역의 가 볼만한 문화 카페를 소개한다

### ▲ 예술의 마을 명지원

넓고 쾌적한 전원에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다. 사진작가 강봉규씨가 지난 97년 담양 고서면 덕촌마을에 찾집과 갤러리를 갖춘 작은 공간으로 터를 닦은 후 올해 초 100여평의 전시·공연 공간, 찻집과 식당 등 휴게시설을 겸비한 대형 복합공간(별파홀)을 개관했다. 이에 따라 명칭을 기존 '명지원'에서 '예술의 마을 명지원'으로 변경하고, 26일~8월26일까지 개관 기념전으로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를 초대해 전시회를 갖는다. 061-383-2577, 2576

### ▲ 갤러리 순이

광주 무등산 관광호텔 인근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이곳은 서양화가 정순이씨가 운영하는 속속형 갤러리다. 80여평 공간을 갤러리와 찻집으로 꾸민 이곳에는 그림, 도자기 등 40여점의 미술품이 상설 전시돼 있다. 자연풍광을 호흡하고 미술품도 관람할 수 있어 단골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062-225-6642

### ▲ 사진 찍어주는 카페

광주 동구 충장로 입구에 있는 사진 전용 갤러리 카페다. 50여점의 사진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과 스튜디오를 함께 갖추고 있다. TV드라마에 등장하는 소품용 옷 등을 갖추고 있어 손님들이 직접 옷을 입고 사진을 촬영하는 재미도 있다. 손님들이 원할 경우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보내주기도 한다. 062-223-1897

### ▲ feria

최근 광주 동구 대의동에 문을 연 2층 공간으로 1층을 전시장과 카페로 꾸몄다. 서양화가 이해경씨가 운영하고 있으며, 그림을 전시할 수 있도록 벽면을 갤러리 공간으로 꾸며놓아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면서 부담없이 그림을 볼 수 있다. 현재 북아트전이 열리고 있으며 지난 달에는 한국화가 윤애근씨와 박유진씨의 작품을 전시했다. 작가들의 작품을 무료 전시해주고, 작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062-224-2592

### ▲ T-브라운

사직공원 인근에 위치한 호신대 도서관 건물 1층에 옮겨진 멋진 공간으로 높은 건물이 없어 탁 트인 무등산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매력이다.

60평 규모의 카페에는 그랜드 피아노와 조명 시설을 갖춘 무대가 있어 작은 음악회, 영화 상영회 등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호신대 재학생과 교수 중창단의 공연이 열렸으며 외부인에게도 대관(20만원)해 준다. 최근에는 음악회를 결정한 와인 강좌가 열리기도 했다.

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찾값이 1천원~3천원 정도로 저렴한 게 특징. 1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룸도 마련돼 있다. 062-650-1655.

### ▲ 한울림

지난해 4월 문을 연 클래식 음악 카페로 짧은 시간에 광주의 명소가 된 곳이다. LP 1만 2천여장 등 모두 1만5천여장에 달하는 음반을 갖추고 있으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독립돼 있다. 진공 스피커 등 오디오 시설을 갖춘 감상실에서는 정해진 시간(평일 오후8시~11시, 주말 오후 6시~11시)에 음악을 신청해 들을 수 있으며 다양한 공연도 열린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선수정·김정아, 강숙자 오페라리인,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씨가 공연을 가졌다. 최근에는 '한울림'이라는 클래식 음악 동호회가 생겨 매월 둘째주 월요일 저녁 모임을 갖고 있다. 062-375-2241

/김미은 mekim@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울림 음악감상실

## 광주에 첫선 프리미엄 영화관 '사롯데'

폭신한 소파에 음료·식사 서비스

# “영화 볼 맛 난다”

귀족같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영화관이 광주에도 첫 선을 보였다. 지난달 22일 개관한 롯데시네마 첨단점의 '사롯데'관이 바로 그것. 과연 분위기는 어떨까. '한반도'가 상영중인 영화관을 찾아 기자가 직접 체험해 봤다.

일단 가격면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 주말 기준 1인 2만5천원(주중 2만원)으로 7천 원인 일반 영화관에 비해 거의 4배 가까이 비싸다.

하지만 영화 관람 1시간 전부터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라운지나 폭신한 소파 등은 가격 부담을 조금 덜어준다. 고급스러운 와인바 분위기의 라운지에서 커피 등 기본 음료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와인도 주문(유료)해 마실 수 있다. 또 잡지·CD 등을 배치, 기다리는 지루함도 줄였다.

영화관 시설도 만족할만 했다. 특히 개당 250만 원 상당의 고급 소파가 인상적. 180도 뒤로 젖혀져 집에서 보는 것처럼 편하게 영화를 관람

할 수 있다. 150~180석의 일반 영화관에 비해 좌석수가 56석(연인석 16석)으로 공간이 넓다.

영화 관람 중에도 담요나 음료, 간단한 식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빙하는 직원들의 움직임이 영화의 몰두를 방해하는 점은 아쉬웠다.

관객 김미희(여·41·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직원들의 서비스가 인상 깊었고, 편안한 좌석이 좋았다”며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관측은 전관 대여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120만원, 평일에는 100만원에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준다. 조조 이용 시에는 5%정도 더 저렴하다.

가격이 부담된다면 현재 매일 첫째, 셋째주 월요일 실시하는 50%할인 이벤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조조의 경우 7천 500원에 프리미엄 영화관을 즐길 수 있다.

/특정기자 ks@kwangju.co.kr



지난달 22일 개관한 롯데 시네마 첨단점의 사롯데 관 내부

## 코리안 네트워크 비전 모색

임채완 교수·전형권 박사 '재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재외한인 연구로 널리 알려진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의 책임자 임채완 교수(정치외교학과)와 전형권 박사가 공동 집필한 책이 나왔다.

'재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는 재외한인을 디아스포라(이산) 관점에서 분석하고 세계 수준의 코리안 네트워크 비전을 모색한 책. 이 책은 척박한 근현대의 실정에서 탄생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적응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풍부한 연구경험을 동원해 학교,



유대인, 인도인 디아스포라의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벤치마킹의 비전을 제시한다. 재외한인들에 대한 네트워크 관점의 연구가 크게 부족한 현실이어서 더욱 눈에 띈다.

<한울이카데미·2만3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오늘출연

## 오늘출연

매일밤 8시 30분부터

신선한 공연, 열정적인 관객

전통예술공연

현대무용공연

음악공연

# 동양

슈퍼관객

# 나이트클럽

# 광진터미널뒤